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김상준 교수

장맛비가 내리던 어느 평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찾았다. 비 오는 날인데다 방학을 맞은 캠퍼스는 한산했다. 오늘 대화를 나눌 천문학자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김상준 교수다.

“경희대 오시기 전에 미국에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있었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성격이 외골수에 고집스럽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안 좋다 하면 죽어도 안 먹고, 어디 가면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사회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폴레옹 말에 ‘정직하게 사는 방법은 가장 가난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칠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탄로 날 때까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죠. 이런 것이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외골수에 고집불통

“바른생활 사나이셨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엄청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학자들을 보면 어린 아이 같아요.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거든요. 천문학자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별을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 가졌던 감동과 초심을 그 대가들은 갖고 있더군요.”

“상당히 일찍부터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당시 아버님이 일본에 왔다갔다하셔서 천체도(성도)를 사다달라고 했어요. 일본어로 돼 있으니 일본말도 배웠죠. 망원경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사고, 고물상 뒤져서 쌍안경이나 미군이 버린 기기에서 렌즈를 떼어

내 만들었죠. 대학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원경 만들어서 처음 본 게 어떤 건가요?”

“맨눈으로도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봤고, 겨울에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봤어요. 망원경으로 플레이아데스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격이란 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장독대 올라가서 보던 하늘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의 초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대가라고 하는 학자들 얘기를 했지만, 70세, 80세 된 노학자가 새로 발견한 사실을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학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학자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해요. 학자가 연구에 손을 놓는 순간,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잣밥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에서 염불을 외는 중이다. 염불을 안 외면 잣밥이 생각난다. 염불을 외지 않을 거면 산을 내려가라고요. 사실 저도 100% 그렇게는 못해요. 그게 힘든 줄 알고, 때론 잣밥에 관심도 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학자가 추구해야 할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잣밥에 관심 갖지 말라

“말씀을 들어보니, 학자의 길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천문학을 하고 있다는 걸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별을 보는데, 먹고살라고 돈도 주잖아요. 연구가 잘 안 된다고 며칠 쉬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크게 느껴야 합니다.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책임 중 하나겠죠.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강연 같은 걸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 것 정도가 제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책임은 연구겠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고, 주말에도 나오고, 안식년에도 나와서 연구하는 제 모습을 보고, 뭘 저렇게 힘들게 사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오는 게 즐거워요. 제게 주어진 특혜를 누릴 수 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요즘은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나요?”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와, 타이탄에 착륙한 호이겐스 호가 보내 온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다

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떨려요. 그리고 며칠, 몇 달 간 행복하고요. 스님이 염불외다 득도했을 때의 기분이 그 기분이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최근에 일인데요. 카시니에 장착된 분광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펙트럼은 인류 최초로 보는 것들이죠. 학생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즐겁고 막 떨린다. 스펙트럼의 모습이 마치 히말라야산맥의 눈 덮인 고봉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마도 저 선생 또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학문적인 연구 성과로부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학자답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생각이요, 저의 이런 생각을 학생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펙트럼에서 히말라야 고봉을 본다

“교수님과 연관되어 기억나는 게 목성과 슈메이커-레비 혜성의 충돌입니다.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목성에 그 정도 혜성이 충돌할 확률은 1천 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합니다. 혜성 충돌을 직접 관측함으로써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충돌 후에 충격파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리엔트리 쇼크(reentry shock)’라는 게 관측되었습니다. 6천5백만 년 전, 공룡이 멸종될 당시의 지층을 보면 이리둑과 검댕이가 지구 전체를 덮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화재로 인한 검댕이가 왜 혜성이 떨어진 유카탄 반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엔트리 쇼크가 발견됨으로써 그 원인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목성과 혜성이 전공인 제게는 평생 한번 오기 힘든 행운이었습니다.”

카시니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새롭게 진행할 연구 주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김상준 교수는 요즘도 이런 꿈을 꾸다고 한다. 별이 수도 없이 많이 보여서 관측하려고 하는데 서서히 동이 터서 아쉬워하거나, 엄청 좋은 망원경으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꿈이 그것이다. 여전히 소년의 꿈을 꾸는 모습에서 학자로서의 순수함이 느껴진다.

